

친애하는 교수님들께 올리는 글

개강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과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월 19일에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저의 회장 임기 2년을 대과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613명의 회원이신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성원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서울대 교수협의회 제 25대 회장으로 전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신용하 교수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습니다. 신 교수님은 그 동안의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학사행정에서도 저보다 훨씬 많은 업적과 경륜을 쌓아오신 훌륭한 선배교수이십니다.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과 한국 교육사회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의 추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의 유일한 기초공동체인 교수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저한테 베풀어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신용하 선생님에게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수님들께 일일이 찾아 뵙고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이렇게 지면으로 올리는 바입니다.

회원 교수님들의 건투를 삼가 빌면서.....

2001년 4월 6일

경영대학 최 종 태 드림